

2013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심의의견

<시>

○ 1차 심의

- 447명의 미발표 원고를 읽으면서 그 문학적 성취를 가늠하는 일은 한국 문학의 저변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시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난처한 상황에도 여전히 시의 창작의 기반이 두텁고 넓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확인이었다. 1차 심의에서는 익명의 미발표작들이라서 시인을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전체적으로 다양한 소재와 형식, 시적 실험 등이 돋보였다. 이 가운데 우리들이 잃어버린 고향의 모습을 티벳이나 몽고 등의 여행 시편들을 통해 탐색하는 작품들이 이채로웠고, 언어와 상상력의 경계에서 현실을 진단하고 서정의 세계를 확장해가는 시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다소 작품의 완성도에서 편차가 있었으나, 많은 시인들이 시에 매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시단의 풍요로움을 확인한 자리였다.

○ 2차 심의

-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은 이미 완성된 작품에 주는 상이 아니라 앞으로 창작될 작품집에 주는 지원금이다. 따라서 심의 기준은 심의 대상작에 나타난 작품의 우수성과 이 작품으로 미루어 성취하게 될 미래의 수월성과 성취도, 그리고 2년 내에 완성도 높은 작품집을 발간할 계획의 구체적성과 타당성이 된다. 응모작의 완성도도 높아야 하지만 그 완성도에는 아직 다 쓰지 않은, 앞으로 나타나게 될, 더 많은, 더 우수한 성취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응모작이 보여준 시 세계가 거의 전부인 작품과 앞으로 쓸 이야기의 기대치가 훨씬 큰 시인들의 작품은 어느 정도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잘 구별하는 일이 심의의 초점이 되었다. 2차 심의대상자는 1차 심의의 격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만큼 작품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우리 시단의 문학적 지형도를 압축한 것 같은 다양한 시세계를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었다. 기존의 성취에 기대지 않고 더 나아가려는 시 정신이 돋보이는 여러 중진들의 저력과 아직 뚜렷하게 시단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절치부심하여 한 방을 보여주겠다는 의욕에 불타는 신인 또는 그동안 활동이 뜸했던 시인들의 기세가 잘 어우러져 있었다. 거기서 나름대로 최선의 수혜자를 선정하였으니, 이번 심의에서 선정된 작품이 성과 있는 작품집으로 연결되기를, 그래서 피 같은 창작 기금이 헛되이 새지 않고 우리 문학의 활력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시조>

○ 1차 심의

- 시조 전반에 대한 인식이 산문화하는의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와 동시에 상투형이 상

대적으로 줄어들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려는 현실 반영의 의지도 보였다. 정형과 리듬의 조화가 부족한 측면이 보였는데, 기계적인 사고와 정형의 틀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말 그대로 시조는 산문적 내용을 정형의 틀 속에서 자유로운 묘미를 갖는 미학의 장르다. 이런 절창에 닿으려는 각고가 상대적으로 아쉬웠다. 그러나 순우리말을 구순하게 잘 조용시켜 시조의 말맛을 얼러내는 뉘플성도 여러 군데서 보였다. 늘이는 것이 아니라 줄이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풍기면서 여운의 웅숭깊은 규율 속으로 내뿜해가는 패기와 정형의 투사가 좀 더 진작되기를 바란다. 또한 제목이나 내용에 외국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외국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시적 타당성과 합리성이 갖춰진 경우여야 할 것이다. 현대 시조의 다양한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결기를 도처에서 볼 수 있어 좋았다.

○ 2차 심의

- 시조가 정형시인 만큼 형식에 큰 문제가 없는지를 눈 여겨 보았다. 2차 심의 대상 작품 중에는 다행히 그런 작품은 없었다. 요즘 일부 시조 시인들 가운데 지나친 파격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조는 시조 고유의 생존 이유기에 형식이 불편하면 자유시를 쓰면 될 일이다. 7백년을 이어온 율격에 현대인의 감성을 담는 것이 현대 시조이다. 형식에 대한 점검을 마친 뒤, 심의위원의 각 개인적 평가가 상당 부분 일치해 최종 지원대상자 5명을 쉽게 선정할 수 있었다.

<소설>

○ 1차 심의

- 응모작의 대부분이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루고 있는 소재와 주제도 매우 다채롭고, 장편소설·단편소설·청소년소설 등 장르 영역도 다양했다. 장편소설에서 특징적인 것은 역사소설이 많고, 또 안정된 수준을 보여주는 작품이 많았다는 점이다. 장편의 서두만을 갖고 심의하는 것이어서 역사를 통해 현실의 삶을 되짚어보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야깃감'에 대한 천착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인물의 움직임으로 이어나가는 역사물 쪽이 역사의 세부를 나열하는 것보다 한결 생동감 있게 다가왔다. 단편소설들은 매우 새로운 시도는 없었으나 현실과 인간의 문제에 깊이 천착하는 작품들이 많아 시류에 관계없이 문학의 본령을 견지하고 있는 작가들의 고투를 엿볼 수 있어, 사회적 지원의 필요와 가치를 환기할 수 있었다. 또한 냉소적인 화법이 현저히 줄고, 현실을 담담하게 담아내는 목소리가 늘 것도 이번 심의에서 확인한 특징이다.

○ 2차 심의

- 나름의 개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자기 세계를 탐문하는 다양한 가능성의 프리즘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소재 개발의 폭을 더 넓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좋은 소재를 그에 걸맞게 형상화하는 플롯 만들기에 미숙함을 보이는 작품이 많았다. 수상자들이 스토리텔링 시대를 미학적으로 선도할 넓고 깊은 이야기 창달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동시>

○ 1차 심의

- 동시 문학 발전에 기여하고 동시문학의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보여주는 창의적인 작품이 많았다. 발달한 상상력을 보이는 동시 및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동시 작품이 적지 않았다. 역사, 전통놀이, 속담 등 어떤 기획의도에 의해 쓰인 시작품도 적지 않았으나 획일적인 시적 전개를 보이는 단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전히 교훈적인 동시 및 계몽적인 동시를 전면에 내세우는 작품 역시 적지 않았다. 발달한 상상력을 보이는 동시 작품 및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동시 작품을 우선적으로 2차 심의대상으로 선정했다.

○ 2차 심의

- 대부분 자연과 생활경험에서 얻은 소재를 정성껏 동시로 형상화하고 있었으나 진보되지 않는 느낌의 동시가 주로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과의 교감으로 얻어진 생태와 생명이야기, 우리 민물고기의 꿈을 담은 노래, 주인공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울퉁불퉁한 일상 보여주기, 우리나라 설화에서 동시 캐릭터 개발하기, 바닷가의 삶을 형상화하기 등 기존의 형식과 내용을 벗어나고자 노력한 흔적이 돋보이는 동시들이 발견되었다. 새로운 소재들은 독자들이 삶속에서 작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었다. 마지막으로 동시의 특성을 잘 살려내고 있는가, 진취적이면서도 다채로운 문학적 경험을 독자들에게 선물할 수 있겠는가, 아울러 재미있게 읽힐 수 있겠는가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한 후 7명을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동화>

○ 1차 심의

- 지원신청 작품 중 역사물, 청소년, 장편동화의 비중이 높았으나, 장르 안배는 고려치 않고 최대한 제출 원고의 완성도를 기준으로 심의했다.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경향의 작품이 많아 아쉬운 느낌이 들었다. 시대의 문제를 직시하고 문학화하는 동화 장르의 동력이 약해진 것 같다. 몇 작품은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작품들이 있어 슝쓸했으나, 몇 작품은 매우 뛰어난 성취를 보여주어 심의를 하면서 뿌듯했다.

○ 2차 심의

- 2차 심의대상 작품 중 동화와 청소년물의 편수는 거의 반반이었는데, 청소년물의 수준이 대체로 월등했다. 그러나 동화에 비겨 청소년물의 소재는 기왕에 다뤄진 것 아니면 비슷한 소재들이 많았다. 동화에서도 소재의 빈곤은 느껴졌는데, 진지함은 덜하고

흥미 위주의 가벼운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 중에 18세기를 즈음한 조선시대의 가상한(시간, 공간 가상) 지방 관아의 별당 규방을 중심으로, 마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의문의 여러 사건을 풀어가는 추리 소설 형식의 연작 <규방 탐정록>이 눈에 띄었다. 장편동화인 <블랙아웃>은 대규모 정전으로 인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현대사회, 무너져 내린 사회에서 고스란히 드러내지는 인간의 허위의식을 열세 살 소년의 눈으로 그려내었고,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장편동화 <말로 지은 집>은 '언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로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도구인 언어를 소재로 다루고 있다. 단편 <어른 동생> 또한 돋보이는 상상력으로 허황되지 않은, 있을 법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서술하고 있었다. 이외 선정된 다섯 작품 역시 뛰어난 작품이었으며, 이를 포함해 총 9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회곡>

○ 1차 심의

- 회곡 분야 작품을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지 않았다. 미발표작이었기 때문에 무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인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회곡이 갖는 문학적 완성도가 떨어지고, 극(劇)성도 대부분 약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 가운데 몇 작품은 소재의 발굴이 새롭고 문제의식이 예각화되어 2차 심의대상자로 선정했다.

○ 2차 심의

- 회곡 분야 심의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앞으로 작품 집필의 질적 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가, 둘째는 창작된 작품의 출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였다. 이 기준으로 2차 심의대상자의 작품을 검토한 결과, 고연옥 작품은 곰신화를 회곡화 하겠다는 취지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 세종실록에 있는 곰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현대의 여성 문제를 연결해서 독특하게 쓸 것으로 판단되었다. 김정숙은 현재 가장 활발하게 연극 활동을 하는 기대주이며, 극작(회곡)과 연출을 겸하고 있어 소리 극이라는 한국 전통 음률을 대사로 쓴 작품집 출간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

<평론>

○ 1차 심의

- 13편의 응모작은 전체적으로 고른 수준을 보였다. 관심을 보인 분야도 시와 소설만이 아니라 동시와 수필의 영역까지 미치고 있었다. 절반 정도의 응모작은 평이한 수준,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사람들에게 읽힐 만한 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특히, 현재의 문학적 이슈와 사회적 이슈에 주목한 글을 2차 심의 대상작으로 결정했다.

○ 2차 심의

- 「세상의 고통과 대면하는 소설의 자리」은 문장이 강건하고 착점이 훌륭하나, 제출

된 작품이 서평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문학과 자치」 문학은 ‘자발적 가난’이라는 주제로 진지한 사회 비평의 예를 보여주고 있으나, 문장에 드물게지만 비문이 보이고, ‘자치’ 같은 핵심 개념의 설명이 부족하다.

반면, 「무위의 공동체」은 근대 세계에 대한 문화비평으로서도, 신자유주의 하에서 문학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도 매우 진지하고 독창적인 견해를 보여주어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수필>

○ 1차 심의

생활 경험과 생활 언어로 쓰였으며, 의미가 깊이 스며있는 작품이 눈에 띄었다. 지나치게 지식을 나열한 작품, 전달 의욕이 넘쳐나는 작품엔 감점을 주었다. 글을 써야겠다는 강박으로 책상에 앉아 글을 만들어가는 느낌보다는 생활을 포착하는 채주와 그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드러난 글, 아름다운 시선, 따뜻한 감성이 느껴지는 글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 2차 심의

- 수필 부분은 2차 심의대상 작품 가운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놓고 최종 대상작을 정했다. 첫째 체험의 진실성, 둘째 소재의 새로운 발견, 셋째 문학적 형상성이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결과 임성용, 조숙, 조성원 씨가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